Exercise 01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한다.

그들은 개인을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로 여긴다.

이 사고는 윤리에 대한 개인적이고 상황에 따른 관점, 즉 ‘내가 하는 일은 나 자신의 소관이다’라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런 문화에서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조직의 가치관이 다를 때 그들에게 맞서기 어렵다.

Habits of the Heart라는 책에서, Robert Bellah와 그의 동료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의 위험성을 논한다.

그들은 개인주의가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일지라도, 도가 지나치면 그것은 또한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더 넓은 공동체를 희생하면서 이기심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된다.

Exercise 02

세상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는 것은 산업화된 북반구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과 대부분 농업에 기반을 두고 끊임없이 ‘개발 중에 있는’ 남반구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세상을 나눈 것과 유사했다.

세계의 가장 가난한 지역의 가장 값비싼 농산물로서 커피는 이러한 구분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150년간 커피는 대단히 값비싼,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사실상 독점 상품이었는데, 현재 커피 수출액은 연간 250억 달러가 넘고, 소매 매출은 그보다 몇 배나 더 많다.

커피는 흔히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품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불평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품 중 하나이기도 하다.

Exercise 03

환경 경제학에서 흔히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다.

전통 경제학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배분은 오늘 상품을 추가로 한 개 더 생산하는 것이 내일 한 개 생산할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가정과 함께 단순화되고 하나의 시기로 한정된다.

많은 환경 재화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오늘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우리는 미래 세대들에게 몇 년간 또는 영원히 지속될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일지도 모른다.

이와 유사하게, 만약 우리가 오늘 모든 새우를 잡아들인다면 공급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일부 환경 재화에 대한 우리의 소비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지도 모르며 미래 세대의 복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Exercise 04

우주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매우 드문 경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학의 역할의 한계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게 된다.

과학은 측정하고 모형을 개발하여 예측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과학적 모형에 대한 논의는 왜 우주가 현재의 그 상태에 있는지에 관해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흔히 유발한다.

전하는 실제로 무엇인가?

왜 물체 사이에 중력이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자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입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과학은 이러한 질문에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가능한 범위까지 다가가지만, 사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사물이 ‘왜’ 그러한 상태인지에 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끈다.

과학은 도중에 거짓의 많은 부분을 제거할 수 있지만,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은 과학적 설명보다는 신념의 행동을 더 필요로 한다.

과학적 모형만이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설명을 어디까지 제공하는가 하는 것은 견해상의 문제이다.

Exercise 05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우리는 자주 기본적 귀인오류(基本的歸因誤謬)를 범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너무 많이 그들의 내적 기질의 결과로 보아서 중요한 상황의 힘을 무시한다.

그 오류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상황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람의 인종이나 성별은 선명하여 주목을 받지만,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상황의 힘은 대개 덜 보 인다.

노예 제도는 노예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는 흔히 간과되었고, 대신에 그 행동은 노예 자신의 본성의 결과로 여겨졌다.

최근까지, 똑같은 것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에도 적용되었다.

성 역할의 제약은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남녀의 행동을 오로지 타고난 기질의 결과로 보았다.

사람들이 인간의 특성은 고정된 기질이라고 더 많이 가정할수록, 그들의 고정 관념은 더 강하고 인종적 불평등에 대한 그들의 수용은 더 크다.

Exercise 06

비록 철학이 예를 들어, 도덕적인 행동과 부도덕한 행동, 진실과 거짓, 실체와 외관 등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탐구하는 데 바쳐지는 공동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철학적 담론은 논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현실과의 부합’을 제안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적절한 기준인 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른 철학자들은 그 제안을 비판적으로 논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현실에 대한 접근이란 항상 생각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그것을 비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철학적 토론은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그 토론의 모든 당사자들은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공동으로 찾아내는 데 전념하는 동시에, (비록 자기가 속한 편을 떠나 반대편으로 바뀔 수 있지만!) 자신의 관점을 옹호한다.

Exercise 07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자 Robert Putnam, 존경받는 법 학자이자 오바마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리인 Cass Sunstein, 그리고 MoveOn.Org의 관리자인 Eli Pariser는 케이블과 웹 기반 미디어가 일련의 정체성 고립 집단을 만들어 내고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에 속한다.

그들의 주장은 오래된 ‘선택적 노출’이라는 명제의 한 종류인데, (이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견해를 강화하는 미디어만 접하기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걱정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편안한, 고립된 미디어 영토에 모이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생각을 교환하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활동가, 하키 팬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쇼, 게임, 뮤직비디오, 혹은 유명 인사의 팬들은 모두 커다란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집단의 제한적이고 보호받는 영역으로 끌린다.

Pariser가 주장하듯이 “당연히, 익숙한 것으로부터 구성되는 세계는 배울 것이 없는 세계이다.” Pariser에게 있어서 위험은 “우리가 변함없고 항상 좁아지는 우리 자신의 변형에, 즉 끝없는 우리 자신이라는 고리에 갇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사용자가 콘텐츠가 되어 버린 것이다”.

Exercise 08

효율성을 증진하는 사회 기반 시설은 상호 작용과 강한 유대 형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한 연구는, 보호자와 부모가 걸어 들어와서, 흔히 교실 안에서 그리고 대개 (모두) 같은 시간에 자녀를 기다리도록 권하는 어린이집이, 부모들이 빨리 자신들의 사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자들 이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일정에 따라 들어와서 서둘러 자녀를 데려다주고 데려가게 해주는 어린이집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계와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속도로, 공항, 식품 공급망 등 우리의 물리적 기반 시설 대다수는 인적 자원이나 필수 자원의 더 나은 순환을 촉진하도록 고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 원자화의 경향을 가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같은 우물에서 자신의 물을 긷는 마을과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 집 안의 수도꼭지에서 자신의 물을 받는 도시의 현저한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라.

Exercise 09

색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요리법을 배우는 것과 많은 유사성을 지닌다. 좋은 레시피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 결과물의 비결은 흔히 준비에 있다.

요리사는 끊임없이 시식하고 맛보고, 수정해야만 한다. 하나의 풍경 사진에 담긴 색깔들은 사진을 구성하는 재료라고 여겨질 수 있으며 색의 배치와 혼합이 최종 결과물을 결정지을 것이다.

두 명의 요리사는 똑같은 재료로 시작할 수 있지만, 각자 서로 상당히 다른 맛이 나는 완성된 요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저 양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재료 중 하나가 자기 정체성을 잃고 다른 재료가 더 지배적이 될 것이다.

요리는 성공적인 식사가 레시피를 읽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동일한 것이 사진사에게도 적용된다.

작품 내 색깔 배치의 변화는 지배적인 것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사진의 전체 느낌이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적절하게 내놓은 음식/사진은 요리사/사진사가 식사/시각적 경험의 모든 단계에 대해 생각했고 식사자/관람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심리적 장을 마련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Exercise 10

고대의 수렵 채집인에 관해 생각할 때, 현대의 모델이 크게 다가온다.

그것들은 고대인의 삶이 남긴 유적을 해석해 온 매개가 된 렌즈이다.

이것은 방법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왜냐하면 고대와 현대의 수렵 채집인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대인의 삶에 관한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순조로울 경우에 우리는 고대와 현대의 수렵 채집 세계 사이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다.

특히, 인류의 생활사의 협력 수렵 채집 모델을 고려할 때, 현대의 자료는 ‘보수적인 검사’를 제공한다.

고대에서 현대로의 전환은 고대의 수렵 채집인의 생활 방식이 가지는 한 부류의 중요한 특징, 즉 협력을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특징의 중요성을 줄이는 경향이 있곤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징들이 여전히 현대의 수렵 채집 인의 삶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고대 수렵 채집인의 삶에 다시 투영할 수 있다.

Exercise 11

종교가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근래 유럽 역사의 위대한 인간화 운동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자연이 심오한 합리성에 기초한다는 견해를 낸 것은 세속의 사상이 아니라 바로 종교였다.

철학 사상에서 이성의 가장 위대한 옹호자 중에는 Anselm과 Aquinas가 있었는데, 그들은 신이 ‘로고스’, 즉 신의 지혜를 통해 우주를 창조했으므로 우주는 분명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믿었다.

근대 과학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융성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Copernicus는 가톨릭교회의 참사회 회원이었다.

Kepler는 하늘이 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믿으며 하늘을 연구했다.

Newton은 자연의 지혜로운 창조자가 틀림없이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우주에 질서를 세웠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자연의 법칙을 (체계적으로) 세웠다.

과학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힘은 이해할 수 있고, 명쾌하며,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법칙이 자연에 들어 있다는 믿음이다.

지극히 합리적인 창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었다.

Exercise 12

감염된 대변으로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써 얻어지는 끔찍한 질병인 콜레라는 상호 연결된 지구의 상징 이상이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것이었다.

1831년 그것이 극적이고도 갑작스럽게 유럽에 등장한 것은 많은 사람을 공포의 복받침[발작]으로 몰아넣었는데, 그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새로운 전염병이 당도했다는 신호를 보냈다.

어떤 사람들은 역병이 급속하게 유행했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도망쳤고, 어떤 사람들은 남아있었다.

콜레라에 대한 두려움은 때때로 실제적인 위협에 비해 과장되기도 했다.

1831년, 콜레라가 러시아를 통과하게 되자 영국인들은 불안해하면서 콜레라의 도착을 기다렸다.

신문, 소책자, 소문이 그 질병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Medico-Chirurgical Review의 편집자인 James Johnson 박사는 The Times에 보낸 편지에 서 언론에 경고했다.

“끔찍한 병인 콜레라 공포증이 이 순간 유행병처럼 영국 제도 각지를 관통하여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 콜레라 공포증은 그 괴물 자체가 실제로 나타남으로써 앞으로 파괴할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영국인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을 것입니다.”